

보도시점

2026.5.14.(목) 11:00  
< 5.15.(금) 조간 >

배포

2025. 5. 14.(목)

## 자동차 생태계 전환 본격 지원 착수

- 산업통상부-금융위원회 공동으로「민관합동 미래차 전환 간담회」개최
- 산업부, 「미래차 부품산업 협의체」공식 출범 … 미래차 전환 지원체계 구축
- 금융위, 올 한해 미래차 분야 정책금융 8.3조원, 부품산업 체질전환에 9.7조원 정책금융 지원, 향후 5년간 국민성장펀드 약 15조원 공급
- 국가승인통계 최초 지정, 「2025년 자동차 부품산업 실태조사」결과도 발표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와 금융위원회(위원장: 이덕원, 이하 “금융위”)는 5월 14일 14:00,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에서 문신학 차관과 권대영 부위원장의 공동 주재로 지방정부 및 지역 거점기관, 유관 지원기관 등 참석한 가운데 “「민관합동 미래차 전환 간담회」 겸 「미래차 부품산업 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글로벌 미래차 전환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국내 자동차 산업의 미래차 생태계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지역과 산업현장 중심의 애로사항 및 정책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우선, 오늘 간담회에서는 민관 합동 「미래차 부품산업 협의체」가 공식 출범하였다. 협의체는 「미래자동차산업특별법」에 따라 산업기술진흥원, 무역보험공사, 코트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18개 기관으로 구성되었으며, 사업재편, 금융, R&D, 수출, 인력 등 전 분야에 걸쳐 부품업계의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미래차 생태계 전환을 중점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어서, 금융위는 자동차산업의 미래차 대응 과정에서 설비·R&D 투자 수요가 확대되면서 중소·중견 부품기업들의 자금부담도 지속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이에 금융위는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향후 5년간 모빌리티 분야에 총 15조원 규모의 자금을 집중 공급하고 '26년에 자동차 부품업계 체질 개선에 9.7조원을, 미래차·자율주행차 산업 육성 등에 8.3조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한국자동차연구원은 작년에 처음으로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된 「2025년 자동차 부품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국내 자동차 부품산업은 사업체 2.1만개, 종사자 45.6만명, 매출액 207.6조원, 투자액 7.1조원 규모로 조사 되었으며, 이중 내연차 전용 부품업체가 4,142개사인 반면, 미래차 전용 부품업체는 578개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업전환·다각화를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업체는 전체 6.1%로 저조한 수준이나, 현재 사업 다각화 계획이 없는 업체 중에서도 23.2%는 사업전환·다각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부품기업들은 사업전환·다각화를 위한 애로사항으로 자금 조달, 기술 경쟁력 부족, 인력확보 등을 꼽았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매년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부품산업 현황과 정책수요를 지속 점검하고, 조사결과를 공표할 계획이다.

\* 전국사업체조사 명부 기반, 자동차 부품업체 유효표본 2,500개 표본조사(25.7~11월)

오늘 참석한 자동차 업계에서는 “미래차 전환기에 내연차 설비를 유지하면서 미래차에 대한 신규투자도 해야하는 이중고를 안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자금, 인력, R&D, 수출 등 정부의 전방위적 지원을 요청”하였다. 또한, 지방정부 및 전문기관에서는 미래차 생태계 전환을 위한 현장중심의 지원사업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중점 추진이 필요한 정책과제들을 제안하였다.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미래차 시대에도 우리 자동차 산업이 지속적인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품 생태계의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며, “올해 상반기 중 자동차 부품업계 미래차 전환을 위한 종합 지원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오늘 출범한 「미래차 부품산업 협의체」를 중심으로 “지방정부 및 지역 거점기관, 완성차 및 부품업계 등과 현장 중심으로 긴밀히 소통하며 부품업계가 체감할 수 있도록 실효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하였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자동차 산업은 이제 자동차 부품에 AI·반도체·소프트웨어·데이터 등을 결합하는 융·복합 첨단산업이자 ‘국가 총력전’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금융위는 자동차업계의 과감한 체질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R&D, 인프라 투자, 금융지원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 총괄 >	산업통상부 제조산업정책과 자동차과	책임자	과 장	임채욱 (044-203-4320)
		담당자	사무관	신상훈 (044-203-4321)
		담당자	사무관	윤현배 (044-203-4322)
		담당자	사무관	채기천 (044-203-4327)
	금융위원회 첨단사업1과	책임자	과 장	최윤석 (02-2224-2030)
		담당자	사무관	조형주 (02-2224-2032)
		담당자	사무관	강성혜 (02-2224-2034)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책임자	과 장	박재훈 (02-2100-2860)
		담당자	사무관	김효빈 (02-2100-2862)

## 참고 1

## 「민관합동 미래차 전환 간담회」 개요

- **일 시** : '26.5.14(木), 14:00~15:30 (90분)
- **장 소** : 자동차 부품조합 1층 대회의실 (서울 서초구)
- **참석자** : 총 46명
  - (정부) 산업부 차관, 금융위 부위원장, 국민성장펀드 단장, 제조국장 등
  - (지역) 지방정부 및 지역TP, KIAPI 등 지역 거점기관
  - (유관기관) 중진공, 중기기술정보진흥원, 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평가원, 무역보험공사, 산업은행, 코트라, 생산성본부, 한자연 등
  - (완성차사) 자동차협회, 현대자동차, KG모빌리티 등
  - (업계) 부품조합, 브릿지재단, 현대기아협력회 등

### □ 세부계획

시간		주요내용	비 고
14:00~14:03	3'	참석자 기념 촬영	
14:03~14:09	6'	<u>모두발언</u>	산업부 차관, 금융위 부위원장
14:09~14:14	5'	미래차 부품산업 협의체 구성·운영 방안	산업부 자동차과장
14:14~14:20	6'	자동차 부품업계 금융지원 방안	금융위 국민성장펀드총괄과장
14:20~14:26	6'	부품업계 실태조사 결과발표	한자연 산업연구소장
14:26~15:30	64'	자유토론 * 민간업계→전문기관→지원기관 등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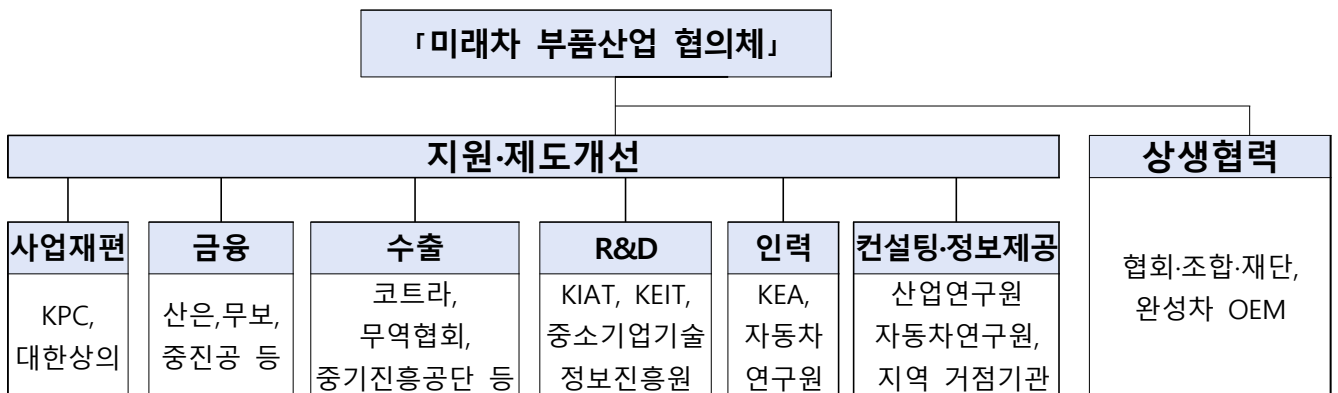
※  모두말씀까지 언론 공개

## 참고 2

## 「미래차 부품산업 협의체」 구성 · 운영방안

- (근거) 「미래자동차부품산업법」 제14조
- (목적) 정부, 지원기관 중심 자동차 부품기업 미래차 전환\* 지원
  - \* 사업재편, 자금, 수출, R&D, 인력전환, 컨설팅, 정보제공 등 종합 패키지
- (구성) KPC·대한상의, 산업은행·무역보험공사·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코트라·무협, KIAT·KEIT,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KEA, 한자연 등
  - \* 코트라, 무보, 중소기업진흥공단, 중기기술정보진흥원은 법상 참여기관

### 【 「미래차 부품산업 협의체」 : 전환 지원 플랫폼 】



- 추후 미래차 전환 유관 단체·기관 지속 추가 예정
- (역할) 미래차 부품산업으로 전환을 위한 종합 지원방안 마련, 추진
  - 분야별 전문가 파견·알선, 연구장비·시설 및 정보제공, 기술지도 및 자문, 경영진단 및 사업재편 컨설팅, 해외진출 및 투자 유치 지원 등

#### < 미래차 부품산업 협의체 주요역할 >

- ▶ 기술·인력·금융·경영 등 분야별 전문가 파견·알선 및 기술지도·사업재편 등에 관한 사항
- ▶ 기관이 보유한 연구장비·시설의 이용 및 정보의 제공, 기관 간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 ▶ 미래자동차 기술개발 및 기관 간의 공동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 ▶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에 필요한 규제개선 사항
- ▶ 국내외 특허출원 등 지식재산화 및 미래차 부품 관련 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 사항

- (운영) 분기별 1회 전체회의, 월 1회 분과별 회의 개최 등 정례화

### 참고 3

## '25년 「자동차 부품산업 실태조사」 결과(요약)

### < 2025년 자동차 부품산업 실태조사 조사개요 >

- ▶ (목적) 산업경쟁력 강화 및 미래차 전환지원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확보
- ▶ (주요내용) 자동차 부품기업의 일반현황(조직형태, 업력 등), 고용, 재무, 산업구조, 수출, 패러다임 변화대응(미래차, 탄소중립) 등 자동차부품 산업의 구조 및 현황 조사
- ▶ (조사방법) 유효표본 2,500개 업체 표본조사(조사원 파견 원칙, 일부 서면조사 실시)
- ▶ (조사대상) 전국사업체조사(경제총조사) 표준산업분류 상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으로 구분되는 11개 세세분류 및 그외 72개 세세분류
- ▶ (조사기관/기간) KDN(코리아데이터네트워크), '25.7월 ~ 11월(4개월간)

① (일반현황) 자동차 부품산업은 사업체 2.1만개, 종사자 45.7만명, 매출액 207.6조원, 투자액 7.1조원 규모로 추정

### < 자동차 부품산업 실태조사 주요 결과 >

사업체 수	종사자 수	매출액	투자액	자본총계	부채총계
21,049개	45만 6,519명	207조 6,328억원	7조 754억원	108조 311억원	132조 3,354억원

※ 종사자 수, 매출액은 자동차 부품산업 분야만 집계

② (부품구성) 내연차 전용 및 공용 부품군 중심으로 부품산업 생태계가 형성되어 있으며, 미래차 부품업체는 상대적으로 低

### < 주력 자동차 부품 구성별 사업체 수, 종사자 수 >

구분	비고	사업체 수	종사자 수
감소군	내연차 전용부품(엔진·변속기 등)	4,142개사(19.7%)	10.9만명
유지군	공용 부품(차체, 전장 등)	12,177개사(57.9%)	30.6만명
확대군	미래차 전용부품(배터리, 라이다 등)	578개사(2.7%)	2.7만명

※ 기타 19.7%는 車 부품 설계·제작 등을 위한 장비, 설비기업

③ (지역분포) 수도권·경남권 완성차사 거점을 중심으로 사업체와 종사자 수 밀집

### < 지역별 사업체, 종사자, 매출액 비중 >

구분	수도권	경북권	경남권	충청권	전라권
사업체	31.5%	14.6%	27.7%	15.8%	10.5%
종사자	21.5%	16.3%	32.9%	19.4%	9.9%
매출액	20.0%	16.5%	31.8%	21.9%	9.8%

④ (사전전환/다각화) 추진·계획 중 업체는 전체의 6.1%(1,286여개사)로, 종사자 수가 많거나 매출액이 클수록 추진업체 비중 高

**< 부품업체의 미래차 전환 대응현황 >**

구분	미래차 전환 대응	미래차 전환 미대응	대응 필요	대응 불필요
업체 수(비중)	<b>1,286(6.1%)</b>	19,763(93.9%)	4,589(23.2%)	15,174(76.8%)
<b>종사자 규모</b>	<b>10인 미만</b>	<b>10~19인</b>	<b>20~99인</b>	<b>100인 이상</b>
전환 업체 수(비중)	625(4.8%)	205(7.9%)	384(8.7%)	73(6.9%)
<b>매출액 규모</b>	<b>10억 미만</b>	<b>10~30억 미만</b>	<b>30~100억 미만</b>	<b>100억 이상</b>
전환 업체 수(비중)	503(5.2%)	193(4.8%)	239(6.7%)	351(9.5%)

- 전환·다각화의 필요성을 인식하나, 대응하지 못하는 업체들의 주요 애로사항(1+2순위)으로 자금 조달 및 기술 경쟁력 부족 등을 응답

**< 사업전환·다각화 미대응 업체의 주요 애로사항 >**

구분	업체 수	정보 부족	기술 부족	자금 조달	인력 확보	판로 개척	행정 절차
전체	4,589	20.8%	29.9%	38.8%	29.3%	25.6%	6.9%
내연차 전용	1,030	19.7%	35.7%	39.5%	23.5%	31.6%	7.8%

- ⑤ (탄소중립) 상당수의 업체는 탄소중립 대응 필요성을 인지(53.8%, 1.1만개) 하나, 자금조달 등 문제로 1,700개사(14.9%)만이 대응 중

- 특히, 매출액이 큰 업체일수록 탄소중립 이슈 인지 및 대응률 高

**< 탄소중립 활동 및 대응현황 >**

구분	탄소중립 인지	탄소중립 대응	탄소중립 미대응	탄소중립 미인지
업체 수(비중)	<b>11,330(53.8%)</b>	<b>14.9%</b>	85.1%	9,719(46.2%)
<b>매출액 규모</b>	<b>10억 미만</b>	<b>10~30억 미만</b>	<b>30~100억 미만</b>	<b>100억 이상</b>
탄소중립 인지	45.1%	51.7%	57.3%	75.8%
탄소중립 대응	5.7%	11.8%	14.4%	31.9%

- 탄소중립 미대응 업체의 주요 애로사항은 자금조달(47.6%) 및 기술 확보(27.5%)이며, 대응 불필요(26.3%)로 인식하는 업체도 일부 존재

**<자료 이용시 유의사항>**

- 본 조사는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받은 후 처음으로 조사·발표하는 통계로 과거 동일 명칭의 실태조사와 작성 기준이 상이한 부분이 있으므로 통계 수치 비교 시 유의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음
- 2025년 「자동차 부품산업 실태조사」 세부 데이터는 향후 국가데이터처 통계정보 시스템(KOSIS)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조사 결과 등은 수행기관(한국자동차연구원 산업조사실, 041-559-5922)에 문의바람

※ 한국자동차연구원 미래차 전환 종합정보시스템 내 자동차 부품산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기재